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성함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독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경기남부지부	도덕도덕적은도서관	이소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열린책들	베르나르 베르베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백과사전			
경기북부지부	모담공원적은도서관	김정희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창작가정신	김이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나의 삶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글			
경상지부	한국적은도서관	김정진	환희의 인간	1984books	크리스티안 보뱅	고요함, 천사가 보내준 이 선물을 사람들은 더는 원하지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대구지부	해복적은도서관	이수미	청년뫼타	복드라마	고미숙	잔치는 끝났다! 이제 성을 떠나야할 시간이다. 이 순간은 싹타르다 개인에게 한 아니라 전 인류적 터닝 포인트다 그의 출가는 인류의 위대한 한 결음이기 때문이다. 대체 그날의 시나리오오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결어서 울래 빠져나갔을까? 아니면 말을 타고 뛰쳐나갔을까? 아니면 외유를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을까?		
대구지부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이옥희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주니어영사	정여민 시/허구 그림	세속의 주어진 영광과 욕망을 뒤로하고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고행의길 출사표를 던지는 순간을 읽는이 로 하여금 2500년전 그현장에 있는듯이 그려냈다.		
사우국		김수민	그런다는 것	천개의 바람	이세 히데코	봄이 찾아와도 산골 굴뚝에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미처 오르지 못한 연기는 집 주위를 맴돌다 봄이 되어 버린다		
사우국	개인회원	김진희	밝은 밤	문학동네	최은영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회랑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불명하면서 여름하면 떠오르는 냄새를 따라가 보며 추억여행에 잠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책 읽으며 이야기 속으로 여행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구요!^^		
사우국	개인회원	김현실	첫! 비구름	봄개울	김나은	색이 없는 맑은 비가 내렸어. 맑은 비는 오랫동안 흘러내렸어. 그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산은 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스스로의 색을 가지게 되었어. 맑은 비를 맞은 세상이 알록달록한 세상이 된 거야.		
사우국		김혜령	다이빙	노는날	호아킨 람프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움직여야한다!		
사우국		양지선	토끼가 되었어	한림출판사	송미경	"눈을 뜨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우국	개인회원	이은주	말	반달	라울 니에토 구리디	가슴속에 품은 말, 그 말을 지금 당신에게 드립니다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적은도서관	이영옥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	오모	이치조 미사키	"난 나랑 사귀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따분했어. 그러니까 가짜 남자친구라도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일을 전부 없었던 걸로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 여행지에서 역시 로맨스쇼		
서울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이해숙	달빛조각	창비	윤강미	"어쩌면 아주 멋진 걸 보게 될 지도 몰라" -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하는 하루를 만나길 바랍니다.		
충청지부	18단지 고운힐스적은도서관	김정화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떠오름	손희찬	이 책에는 삶에 대한 현명한 조언이 가득 담겨 있었다. 누구에게나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는듯한 내 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는 순간만큼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으며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반짝이는 모든 별들이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충청지부	가재마을10단지적은도서관	민주현	삶의 모든 색	길벗어린이	리사 아이사토	삶의 모든 순간,당신이 사랑받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보면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지고 혼자보아도 사색에 잠길수 있는 책으로 삶의 과정을 아름다운 색채의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줄맛처럼 씩인 문장은 흥미하게되고, 그림을 보면 가슴이 간지럽기도 저려오기도 합니다. 책장 덮고 나서도 여운이 남아 불명하며 보기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충청지부	가재마을10단지적은도서관	민주현	내일을 바꾸는 확실한 행동	한울어린이	시릴 디옹, 피에르 라비	야외활동에서 지켜야할 예절? 우린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야~라고 인식하기! 아이들과 야외활동이 많은 요즘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해볼수 있는 책으로 추천합니다. "사자는 배고플때에만 사냥한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소중한지! 내가 할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은 결국 나를 위해 하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충청지부	한울적은도서관	최수현	모든 삶은 흐른다	로랑스 드벨레르	피카	파도는 예상보다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멀리 밀려간다. 밀려갈 때는 영영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어느새 발밑에 와있다. 우리 삶에 영원히 사라지는것은 없다.		